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공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0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43(통57).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피약벌에 고개를 숙인 잎새처럼, 무더위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뜨거운 열기로 한껏 달구어진 우리의 몸과 맘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 땀 흘리시며 일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야 할 길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 열리는 청파 전교인 수양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분주한 일상에서 물러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시고, 청파교회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빌4:6-7 인도자
- ♣ 교 독 문 24. 시편46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I. 오재환 선생 II. 조병무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73(통503). 고요한 바다로 다함께
- 성경봉독 I. 마17:1-9 염철민 학생
 II. 막6:30-32 권미숙 집사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비밀 여행 김재홍 목사
 II. 외딴곳으로 가자 김기석 목사

- 찬 양 412(통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과 조용히 이야기 나눌 곳을 마련하며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누는 쉼이야말로 바른 삶의 원동력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이따끔 생기는 여유마저도 그릇된 욕망을 채우는 데 사 용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의 음성 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 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말씀 : 김기석 목사	8월 기도의 밤
5 남, 7·8 여선교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김훈동 권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허호범 박두석 박성실 이건화 정경례
	헌금위원	한완식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외로움

... 외로움이란 감정은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살짝 감추어질 수 있다. 다른 이들과처럼 나 또한 젊은 시절 그랬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때나 실패할 것 같은 때에만 외로움을 인식하게 된다. ...

외로움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몸이 아플 때, 친구가 없을 때, 일에 실패하거나 친구와 관계가 틀어져 마음이 무거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 자신이나 다른 이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 외로움은 찾아온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위협적일 수 있다. 그럴 때 삶은 의미를 잃어버린다. 혼자 있다는 것이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왕성하게 일하며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외로움은 인간 본성의 필수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잠시 가리워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외로움은 인간의 한 부분이다. 자신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고 사는 이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외로움은 꼭 필요한 요소다. 외로움은 창조적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예술가, 시인, 신비가, 예언자 들과 같이 세상의 정해진 틀과 제도에 맞지 않아 같이 보이던 사람들은 자주 외롭게 지냈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으며, 현실과 평범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고, 많은 에너지가 사소한 것들에 소비되고 있는 경쟁적인 사회에 대해서도 불만이었다. 부정의에 저항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애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들 안에는 외로움을 연료삼아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합일에 이르게 하는 신비하고 근원적인 힘이다. 하나님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로움으로 인해 무관심과 분노에 빠지기보다는 그 힘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에너지로 사용한다. 외로움은 그들을 절대자 앞에 몰아세운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절대자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와 동시에 새로운 목마름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체험은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처럼 외로움은 선을 향한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은 그보다 부정적인 면들을 보여줄 때가 더 많다. 외로움은 무감각과 우울증,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외로움은 내면의 고통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 우리를 도피와 중독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외로움에 기인한 무감각함은 노인과 장애인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절망에 빠져 ‘도대체 남은 게 무엇인가?’ 절규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외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 불행의 집합소와 같은 어떤 정신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심각한 장애를 지닌 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방치된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곳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울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무도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무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울지 않는다. 우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외로움은 자신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좀먹어 들어가는 아주 심각하고 중한 우울증을 유발시킨다.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외로움은 혼돈스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죽음과 같은 자기 파괴의 욕망으로 드러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그와 같이 외로움은 고뇌, 고통에 찬 비명이 될 수 있다. 삶을 이어갈 어떤 빛도, 위로도, 평화의 감정도, 기쁨의 감정도 없다. 그러한 외로움은 혼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준다.

삶은 더 이상 인식 가능한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외로움에 빠져든 사람에게는 공허, 고통, 내적인 동요만 있을 뿐,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고픈 갈망과 욕구,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와 같은 사람은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 삶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모든 질서와 규칙은 사라지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된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완벽한 혼돈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간다. ...

라르슈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깊은 내적인 치유는 주로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와 소속감을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섬기고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런 치유는 정성스런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니다.

꽃씨

안오일 (아동문학가)

꽃씨는 알까요?
아주 조그마한 자기 몸이
딱딱한 땅을
뚫게 되리란 걸

꽃씨는 알까요?
아주 조그마한 자기 몸이
세상을 물들이는 꽃이 되리란 걸

꽃씨는 알까요?
정말 정말 조그마한 자기 몸이
꽝꽝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는
열쇠가 되리란 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곽상준 최경미 김윤수 박상호 김일량 이은옥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박지인 방민 안종일 정현주 오진훈 노순옥 임승동
 백혜숙 최종원 방준 박시내 김민화 정재정 정한구 왕영순 박권동
 전해리 이건식 신영신 이영우 곽새롬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박범희 박미영 서정순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이성범 이소순 이재구 황선희 이현순 장재영 김재영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정현숙 이수정 배재경 김지윤 임영 정경례 이봉옥 문홍일
 백성래 이영우 최재욱 이수정 무명3

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전성오 임동인 김지호 유병선 정현선 권혁신 임영
 정경례 무명5

녹색꿈헌금: 최경미 김용길 최영혜 이나단 무명1

생일헌금: 안정숙 정재운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쉽	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주최 예배**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5 남선교회와 7·8 여선교회가 주관합니다.
2.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8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순서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연합예배** : 다음 주일(8일) 예배는 1, 2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4. **수양회** : 2010년 전교인 수양회가 열립니다.
 - 일 시 : 8월 5일 ~ 7일
 - 장 소 : 흥천은현기도원 (강원도 흥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1192번지)
 - 주 제 :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 준비물 : 성경책, 세면도구, 얇은 이불, 갈아입을 옷 등
 - 출 발 : 5일(목) 오전 9시
 - 약 도 : 1, 2층 로비와 사무실에 비치 (버스 시간표 포함)
 - 카 폴 : 가능하신 분과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5. **수양회 참가 신청** : 각 선교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선교회장이나 심방전도사님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양회 준비 회의** : 수양회 준비를 위한 회의가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준비위원들과 각 선교회 회장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과도한 냉방을 하지 맙시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7도입니다.
 - * 떡과 커피 대접 : 이정은 권사 (생일)
 -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다음 주 : 갈라디아 속)
 - * 설거지 봉사 : 박시내 권혁신 연태호 (다음 주 : 오재환 정희은 김세진)
 - * 새교우 : 정재윤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